

인공지능 기반 수요응답형 '광주투어버스' 첫 선

앱 호출 방식 오늘부터 관광지 운행
이용객 대기시간 2시간→30분 단축
접근성 등 관광객 이동 편의성 증대
"관광 스마트 모빌리티 도입 첫걸음"



'앱 호출' 광주투어버스. 광주시 제공

정류장에서 앱으로 호출하면 버스가 찾아오는 '광주투어버스'가 광주전역을 누빈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부르면 갑니다" 광주투어버스' 앱을 23일 출시한다.

오는 12월13일까지 운행 예정인 광주투어버스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적용 관광형 버스로, 이용객의 다양한 호출에 따라 AI기술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최적 경로를 생성한 후 탄력적으로 노선을 운행한다. 이용객은 앱으로 승차할 정류장에서 탑승인원

을 선택해 광주투어버스를 호출한 뒤 가고 싶은 목적지와 가까운 정류장에 내리면 된다.

정류장은 광주 주요 관광지인 △비엔날레 전시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양림오거리 △사직전망대 △광주송정역 △광주공항 △유스퀘어 터미널을 중심으로 운행한다.

광주투어버스의 최대 장점은 편리성이다.

AI를 적용해 이용객의 대기시간을 평균 2시간에서 평균 30분으로 줄였다. 또 차량 크기를 45인승에서 15인승으로 축소해 대형버스로는 진입이 어려웠던 양림

동의 관광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외국인 관광객이나 스마트기기 사용이 서투른 이용객을 위해 앱 이외 전화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운행 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1회권 탑승 요금은 성인 1700원, 청소년 1350원, 어린이 850원이다. 탑승 후 단말기 태그를 통해 결제하고 시내버스, 지하철 환승이 가능하다.

이동이 잦은 관광객을 위한 1일권 패스도 판매한다. 이용요금은 1인 3000원으로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고 24시간 동안 무제한 탑승이 가능하다. 다만, 1회권과 달리 다른 대중교통 수

단과 환승은 불가하다.

광주투어버스 앱은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관광 오매광주 누리집(tour.gwangju.go.kr)과 광주관광공사 대표 누리집(www.gjt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광주투어버스 운영을 통해 광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여행하기 편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광 스마트 모빌리티 도입의 첫 걸음마인 만큼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광주시, 오룡동 시민의 숲에 물놀이장 개장

내달 18일까지 30일간 운영
초등학생 이하 무료 이용

광주시에 최근 동구 광주천변에 물놀이장을 개장한 데 이어 북구 광주시민의 숲에도 '도심 속 물놀이장'의 문을 열었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어린이들이 여름철 무더위를 피해 신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북구 오룡동에 위치한 광주시민의 숲에 '어린이 물놀이장'을 지난 20일 개장, 8월18일까지 30일간 운영한다.

올해는 장애인 친구들이 물놀이 활동으로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장애인 물놀이 체험활동의 날'이 확대 운영된다. 이틀간은 비장애인의 이용이 제한된다.

물놀이장 운영시간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오후 5시 운영하며,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도시공원관리사무소(062-613-6467)로 문의하면 된다

다. 매주 월요일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놀이장 환경을 위해 대청소·시설물 점검 등으로 휴장하고 우천 등 기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또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하고, 시설물 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시민의 숲 물놀이장'은 1000㎡ 규모로 평균 수심은 20cm이다. 물놀이 시설로는 돌고래와 잠수함 모양의 대형 놀이기구를 비롯해 125m의 흐르는 물을 따라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계류시설을 갖추고 있다.

물놀이장에 공급되는 물은 100% 수돗물이며, 사용한 물은 재사용하지 않고 매일 새로운 물로 교체한다.

광주시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15일마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노병하 기자

영암 코스모스링스, 휴가철 이색 골프장 각광

세계 유일 직선 활주로형
여름이벤트 최대 57% 할인



분화구 모양 벙커. 영암군 제공

영암·해남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호지구에 지난 3월 정식 개장한 세계 유일 직선 활주로형 골프장 '코스모스링스'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색 골프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코스모스링스는 지난해 9월 KPGA 코리아투어에서 첫선을 보인 후 직선 활주로형 코스와 분화구 모양 벙커 등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창조적 골프 코스로 애호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코스모스링스는 18홀 규모로 매패지의 평탄하고 광활한 지형적 특성을 살려 정통 링크코스와 클래식 코스를 창조적으로 재해석한 독창적 런웨이스타일로 설계됐다. 이는 완전한 평지에 폭 100m, 길이 1850m의 쪽 뺨은 활주로 4개가 붙어 있는 직선코스, 모든 코스를 더하면 6772m로 국내 최장 길이다.

평지에 직선코스라 단조로운 느낌을 주지만, 365개의 깊고 좁은 분화구형 벙커가 곳곳에 위치해 결코 만만치 않은 도전적 코스라는 평이다. 조립식, 가변형 골프

장으로 코스 디자인을 원하는 대로 쉽게 변경할 수 있어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코스를 경험할 수 있다.

코스모스링스는대중형골프장으로,노캐디에 저렴한 그린피로 운영돼 합리적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 2인, 3인 경기도 가능하며 1인 로봇카와 같이 페어웨이를 이동할 수 있어 도보 라운드가 가능하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썸머시즌 이벤트도 실시, 기존 그린피 대비 최대 57%를 할인해 6만원부터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회원에 한해 4인이 경기하는 경우 시니어 1인 동반 등 요일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1인 그린피를 면제해준다.

이 밖에도 골프 여행객을 위해 골프 투어사와 연계한 1박2일 골프 숙박패키지 상품도 마련됐다.

오지현 기자



북구, 식중독 예방 캠페인
광주 북구청 보건위생과 식품가공팀 직원들이 22일 북구 관내의 한 음식점에서 여름철 식중독 예방과 음식 재사용 안하기 등 안전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나건호 기자

전남도, 사회적경제 가치 확산·경쟁력 강화 나선다

투자유치 역량·시장진출 지원
내달 20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전남도가 사회적경제 가치를 확산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2024년 사회적경제 투자유치 역량강화·시장진출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오는 8월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영세하지만 발전 잠재력이 큰 전남 사회적경제의 도약과 성장의 디딤돌을 마련하는 이번 사업에는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한전KPS가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또한 엑셀러레이팅 전문기관인 전남창업기술지주, 전남대기술지주, 순천대창업지원단, 목포대창업진흥단과 함께 참여

기업 발굴과 투자 연계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응모 자격은 △사회적경제기업 △벤처기업법에 따른 소셜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진흥공단 '로컬크리에이티브육성사업'에 선정된 로컬크리에이터 등이다. 기업 진단과 서면 평가를 통해 20개 기업을 선발한다.

선발된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자금조달 방법, 투자유치 기초 등 '투자유치 역량강화 교육'과 사업모델 스토리텔링, 피칭 디자인 지원 등 '심화 멘토링 및 코칭'을 공통으로 진행한다.

교육 및 코칭을 이수한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10월 중 투자유치 모의대회를 진행해 10개 기업을 선정하고, 마지막 본선

대회를 통해 최종 6개 기업을 선발한다. 최종 6개 기업에는 도지사 상장과 상금, 타 투자대회 참여와 투자기관 연계 기회 등을 제공한다.

응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와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61-741-9941)로 문의하면 된다.

위광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과 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공모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내달 2일까지 '경관보전직불제' 접수

ha당 100만~170만원 지원

전남도는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지역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개선하고 축제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경관보전직불제 신청을 오는 8월2일까지 접수받는다.

신청 대상은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이나 농업법

인이며, 농가 당 경관보전직불금 지급 한도 면적은 농업인의 경우 30ha, 농업법인의 경우 50ha다.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단계는 경관효과가 뛰어난 유채, 메밀, 코스모스 등 경관작물을 재배하면 ha당 170만원이고, 보리, 밀, 이탈리아 라이그라스 등 준경관작물은 ha당 100만원이다.

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에서 작물 파종 개화 상태 확인, 재배·관리 등의 이행실태

를 확인해 지급된다. 동계작물 경관보전직불금은 사업 해당 연도 5월 이행점검 후 7월에, 하계작물은 11월 이행점검 후 12월에 각각 지급된다.

사업 신청은 해당 지구별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2023년 지역축제·도농교류 등 연계 추진 실적과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8월2일까지 시군(읍면동)에 하면 된다.

전남도는 2023년 전국 배정 면적의 38%인 5192ha에 대한 직불금 78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총 7371ha를 지원할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